

Chpt. 9. Explaining and Understanding

김재상 (과사철 협동과정, 2003-20331)

◎ 막스 베버, "Economy and Society"

1. 의미수준(이해)과 인과적 수준(설명)의 대조
 - 이 두 수준의 결합으로 사회적 지식에 도달할 수 있다.
2. 행위발생의 이유 '설명' 전에 행위의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3. 행위에 대한 정확한 인과적 설명은 인과적으로도 적합하고 의미의 차원에서도 적합하다.

◎ 세 가지 질문

1. (의미수준) 행위 재구성의 합리적인 두 방식을 융화 시킬 수 있는가? - 규칙-추종자들과 합리적 선택 행위자
2. (인과적 수준) 어떤 인과관계 개념이 사회과학에 있어서 대부분의 인과관계를 제공하고 있는가? - 인과성
3. 의미수준과 인과적 수준이 어떻게 결부될 수 있는가?

(의미수준) 행위 재구성의 합리적인 두 방식을 융화 시킬 수 있는가?

1. 합리적 행위에 있어서 규칙-유도되어지는 측면과 전략 적인 측면을 인간의 자율성을 통해 융화시킬 수 있다. 규칙들은 제한이 없으며 해석에 의존한다. 규칙들 간의 갈등 발생시 효용을 통해 우선권을 부여하여 합리적 선택을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즉 규범적 맥락에서 선택사양(option)이 제공되고 합리적 계산을 통해 선택사양에 대해 특정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사회적 허용들과 제한들 안에서 도구적인 합리적 선택으로 사회적 활동을 분석하여 *homo sociologicus* 와 *homo economicus*를 결합할 수 있다.

awkward looking point : 양방향

규칙은 '행위'에 의존

아래
2. 게임이론에 의한 도움으로 합리적 선택이론이 합리적 행위자들 간의 비우호적 게임들의 결과물로서 사회적 규범을 분석하는데 성공한다면 게임을 중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게임들의 결과물들이 자멸적인, 파레토 열등(pareto inferior)하다는 것이다. 효용과 게임이론의 관계를 지네(centipede)로 나타내어 살펴보면 귀류적 유도(backward induction)로 인해 상호 열등한 결과물이 산출되어짐을 알 수 있다. 게임이론 장치의 구제를 위해 수정이 필요하다. 수정을 위해 구속적 속성을 지닌 '약속', 'awkward-관점'을 도입시켜보아야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되지 않는다. 합리적 선택자는 효용을 최대화하는 전략으로 선택할 것이며 이는 계속해서 자멸적인 결과를 산출한다. 흠의 언급대로 판단과 이해 안에서 합리적 선택을 구제하고자 시도할 수 있다. Harry Frankfurt는 2층(two-tiers)의 선호, 즉 일차 선호와 2차 선호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는 적절한 구체책이 아니다. 좀 더 높은 층의 선호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또한 판단과 이해 안에서 합리적 선택을 구제하고자 할 경우, 어떻게 정확하게 판단이 전략적 선택을 돕는지를 알 수 없다. 판단과 이해 안에서 합리적 선택에 대한 구체책을 찾을 수 없다. 좀 더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3. 게임의 결과물을 사회적 규범으로 여기는 합리적 선택과 행위의 이유들을 규범으로 여기는 규범적 기대 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규범적 기대와 합리적 선택은 상호의존적이다.

reason → action → behavior

(인과적 수준) 어떤 인과관계 개념이 사회과학에 있어서 대부분의 인과관계를 제공하고 있는가?

- 행위의 이유들(reasons)은 행위의 원인들(causes)인가? *인과성(meaning)* *action's reason = cause* *behavior* *reason이 된다.*

1. 합리적 선택이론의 합리적 행위자를 위해 이유들은 원인들이다. 선호도가 주어지고 선택이 직접적으로 계산되어진다면 행위자의 내부적 작업들은 인과적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2. 규칙-추종자들에 대한 분석의 결과는 막연하다. 제도들과 관습들(practices)이 '체계들(systems)'이라면 규칙 추종은, 행위자의 심리를 통해 전달되어진, 체계의 압력에 의해 야기된 행위로 볼 수 있다. 반면 비트겐슈타인주의자(wittgensteinian)의 입장에서 보면 행위들은 게임에서, 의미에 의해 동기화된, 말의 움직임과 같다. 여기에서 개인의 심리의 관련은 배제된다. 이러한 비트겐슈타인주의자의 입장에서 게임에 대한 행위자의 이해에서 유래된 행위의 이유들은 원인들이 되지 못한다.

예외

의미수준과 인과적 수준이 어떻게 결부될 수 있는가?

1. 합리적 행위자들의 전략적 상호작용 가운데 각각의 행위자들은 합리적 기대를 지닌다. 자기 성취 예언과 비슷한 합리적 기대들은 사회적 세계에 대해 보편적이고 예측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한편 규범적 기대는 사회생활의 본질이다. 비트겐슈타인의 구성적 법칙과 규범적 법칙은 사람들이 그들의 사회적 위치들과 연관된 규범적 기대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의존한다. 이런 규범적 기대에서는 사회적 세계에서 사회적인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행동을 어떻게 기대하는에 의존한다.
2. 기대는 규범적이고 예측적인 측면을 둘 다 지니고 있다.



Chpt. 9. Explaining and Understanding

김재상 (과사철 협동과정, 2003-20331)

◎ 막스 베버, "Economy and Society"

1. 의미수준(이해)과 인과적 수준(설명)의 대조
 - 이 두 수준의 결합으로 사회적 지식에 도달
2. 행위발생의 이유 '설명' 전에 행위의 의미를 이해해야 함
3. 행위에 대한 정확한 인과적 설명은 인과적으로도 적합하고 의미의 차원에서 적절하다.

◎ 세 가지 질문과 토의사항

1. (의미수준) 행위 재구성의 합리적인 두 방식을 융화시킬 수 있는가?
 - 지성적인 규칙-추종자들과 게임이론의 합리적 행위자
2. (인과적 수준) 어떤 인과관계 개념이 사회과학에 있어서 대부분의 인과관계를 제공하고 있는가? - 인과성
3. 의미수준과 인과적 수준이 어떻게 결부될 수 있는가?

Rules and Reasons

1. 합리적 행위에 있어서 규칙-유도되어지는 측면과 전략적인 측면을 인간의 자율성을 통해 융화시킬 수 있다.
2. *homo sociologicus* 와 *homo economicus*
 - * *homo sociologicus* > 충실한 규칙-추종자
 - * *homo economicus* > 효용-최대화하는 개인
 - * 규칙과 이성의 상호의존
3. 사회적 허용들과 제한들 안에서 도구적인 합리적 선택으로 사회적 활동을 분석하여 *homo sociologicus* 와 *homo economicus*를 결합할 수 있다.

Homo Economicus Revisited

1. *homo economicus* - 매우 기계적인(자동적인) 개인
 - * 주어진 선호도와 자동 계산된 합리적 선택의 처리량
 - * 심리적 특성 개입 없다.
2. 구별된 개개인들 - 심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 * 심리적 특성 - 실제적인 결정과정, 행동 등에 영향

The Centipede

1. 지네(centipede) - 효용과 게임이론 형식의 관계 제시
2. 합리적 선택에 있어서의 열등한 결과 산출을 보여줌.
 - 귀류적 도입(backward induction)
 - 게임이론 장치의 구제를 위한 수정이 필요하다.

An Animal Capable of Promising

1. 구속적인 계약
 - * 게임이론에 있어서 행위의 논리는 전진적(forward)인데 계약의 논리는 퇴역적(backward)이다.
 - * 약속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2. awkward 관점(looking point)만이 작은 수정을 요구함
 - * 몇몇치 못한 양심에 대한 고통
 - * 합리적 선택 행위자 - 기대효용 최대화를 위해 노력 > awkward 관점에서의 작은 수정의 삭제
3. 합리적 선택 > 자멸적(self-defeating)인 결과 산출
 - * 행위자 - 우월의 논리에 따라 선택 / 자멸적 결과
 - *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A Remedy in the Judgement and Understanding?

1. 판단과 이해에 있는 구체책 > 흄의 'Treatise'
2. 수월하지 못한 구체책

- * 2층 선호도들은 충분한 장치가 아니다.
 - 좀 더 높은 수준에서의 판단이 필요하다.
- * 판단이 전략적 선택을 어떻게 돕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다. => 판단과 이해에는 *homo economicus*를 도울 수 있는 구체책이 없다.

3. *homo economicus*를 도울 수 있는 방법

- * *homo economicus*와 *homo sociologicus*의 협의 가능
 - 규칙-추종자들(rule-followers)과 지네의 조화
 - 합리적 선택과 규범적 기대의 상호의존
 - 자아(self), 역할(role), 동기들(reasons):복잡한 결과

Rules, Reasons and Causes

- * 복잡한 결과와 두 번째 질문
- 1. 행위의 동기들(reasons)이 행위의 원인들(causes)인가?
 - * 'because'의 의미 다름 - 일반적 / 행위에 있어서
 - * '동기들이 원인이다'-인과관계에 대한 뛰어난 기술 없다.
- 2. 표준적인 합리적 선택 이론의 행위자들
 - * '동기들이 원인이다' : 인과관계
 - 선호도가 주어지고 선택들이 직접적으로 계산되면, 행위자의 내부 작업들은 인과적 과정 단계들이다.
- 3. 규칙-추종자들(rule-followers) : 'trickier'
 - * 규칙추종은 행위자의 심리(mental state)와 관련 있다.
 - * 비트겐슈타인의 '게임' - 규칙과 관련, 이해의 영역
 - 행위는 의미를 부여하는 규칙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 행위와 심리(mental state)의 (인과적)관련 배제
 - 행위에 대한 동기들은 행위에 대한 원인들이 아니다.

Rational Expectations and Normative Expectations

- * 마지막 질문
- 1. 합리적 기대들 - 합리적 행위자의 전략적 상호작용
 - * 행위자들은 자신의 전략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대방의 전략에 대해 알고 있다.
 - * 합리적 기대들 - 자기성취 예언과 비슷함. 예)교통체증
 - * 사회적 세계에 대한 합리적 기대들 > 예측적이며 생산적
- 2. 규범적 기대들
 - * 규범적 기대들은 사회생활의 본질이다.
 - * 비트겐슈타인 '게임'의 두 범칙들
 - 사람들의 사회적 위치와 연계된 규범적 기대들에 대한 해석에 의존한다.
- 3. 기대들은 규범적이고 예측적인 측면들을 지니고 있는데 기대들의 예측적 측면은 세련된 합리적 선택 이론과 관련 되어질 수 있다.

Conclusion

기대들이 사회적 세계를 움직이게 할뿐만 아니라 그 세계의 본질이라는 생각은 자연주의자와 잘 맞지 않다. 이러한 자연주의자의 관점을 정리해본다.

첫째, 존재론적으로, 확정된 것보다 제안된 것이 더 많다.

둘째, 방법론적으로, 설명은 여전히 중요성을 지니고 있으나 자연주의는 해석학에 그 우위를 양도했다.

셋째, 인식론적으로, 자연주의자들은 실재론자들이거나 실용주의자들이다.